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40)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여래의 신상(身相)은 신상이 아니다

강의를 들던 외국인 학생들이 묻습니다. "원호 스님은 한국 불교사상 가장 위대한 불교학자요. 실천가라면서요. 그런데 왜 관음보살을 친견하지 못했나요?"

원호의 생애나 일화는 손에 꼽을 만치 적습니다. 그나마 그 가운데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지요. 낙산사를 친견한 의상, 그리고 그 절로 관음보살을 친견하려 가는 원호 이야기가 실린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기사도 그 중 하나입니다.

'낙산의 두 큰 성인(洛山二大聖)' 이야기의 줄거리는 대강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의상이 동해의 동굴에서 수도하다가 일주일 만에 관음을 친견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스님은 관음이 지시한 자리에 낙산사를 세우고, 받은 염주와 보석을 안치했습니다. 지금의 낙산사가 바로 그곳입니다.

월경대 댐 물을 먹으라니

원호도 관음을 친견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떠났는데, 어느 교의 눈에서 흰 옷을 입고 일을 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원호는 여인에게 수작을 걸었던 모양입니다. "그 벼, 나 좀 주지?" 여인은 흥인이

라 벼가 제대로 여물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작업이 잘 안되자 실망한 원호는 다시 길을 갔고, 다리 밑을 지나는데, 또 어느 여인이 개집을 뺏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집이란 말이 좀 생소할 터인데, 여인들이 매달 걸리는 마뱀(?)을 옛적에는 매달 거친다는 뜻에서 '달거리'라고 했고, 그때 쓰는 천을 개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튼 그 속스러운 장면을 그냥 지나쳤으면 좋으련만, 스님은 또 그곳에 여인에게 돌 한 잔을 떠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인은 그런데 부끄러워하기는커녕, 표주박으로 그 빨래하던 물을 떠다 스님에게 내밀었습니다. 스님은 아마도 화를 내면서, 그 물을 뱀 내버리고, 위쪽 상류의 깨끗한 물을 떠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나무 위에서 새 한 마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호(醍醐)를 마다한 화상아!" 제호란 네티라라고 번역하는, 신선들이 마시는 감로수를 말합니다. 그 물은 뱀 내버리고, 위쪽 상류의 깨끗한 물을 떠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나무 위에서 새 한 마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호(醍醐)를 마다한 화상아!" 제호란 네티라라고 번역하는, 신선들이 마시는 감로수를 말합니다. 그 물은 뱀 내버리고, 위쪽 상류의 깨끗한 물을 떠다 마셨습니다.

에 신발이 놓여 있었는데, 얼마 전 본 바로 그 신발이었습니다. 스님은 자신이 만났던 여인이 관음보살의 화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차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소나무를 관음송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호는 그 동굴에 들어가 살아있는 보살의 모습을 친견하고 싶어했지만, 그때마다 파도가 높게 들이쳐서 결국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는데, 그런 점에서 할머니 무릎에서 들은 이야기와 복잡 정교한 철학, 그리고 황당무계해 보이는 신화, 꾸민 픽션인 소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즈음은 철학보다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신화와 우화, 이야기와 소설에 담겨 있는 진실이 더 진실하고 구체적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수많은 황당하고 비실제적인 이야기들, 일연 자신은 '빠뜨린 사실

이 유포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의상이 귀족 출신이었고 원호가 유두품 출신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기, 무엇보다 원호가 정통불교도 상에 걸맞지 않게, 술을 마시고 잡배들과 어울리며, 아내와 자식까지 얻은 파천왕의 행태가 보태지면, 이런 해석은 설득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정치적 해석보다 더 근본적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원호의 이야기는 불교가 알려고자 한 근본적 지혜, 바로

영웅적 수용에 대하여

더러운 것을 마시고, 낮은 자리에 가까이 처하는 영웅적 자세 없이는 관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호의 이 일화는 그 어려운 결단이 지혜의 근본임을 보여주기에 위한 것입니다.

원호의 눈을 가로막는 파도는 바로 그 저항, 즉 운명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오랜 저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항의 승수를 즐기십시오. 어쩔 수 없는 조건은 수용하고, 불필요한 저항은 즐기는 것이 불도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 영웅적 수용(the heroic acceptance)이 웰빙, 잘 사는 길의 요제입니다.

의식주의식적 저항을 즐기면 안팎이 평온해집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훨씬 너그워집니다. 작은 일에 화를 내는 횡수가 줄어들고, 내 시선 밖에서 사물을 보는 눈이 자랍니다. 그때 어려움 또한 들에서 일하는 여인이 작업(?)의 대상으로서 아니라, 이웃으로 친구로, 나아가 부처와 보살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회구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항과 회구의 파도가 잠잠해질 때, 관음보살은 스스로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눈먼 욕망과 분별의 파도로 하여 가까이 있는 그분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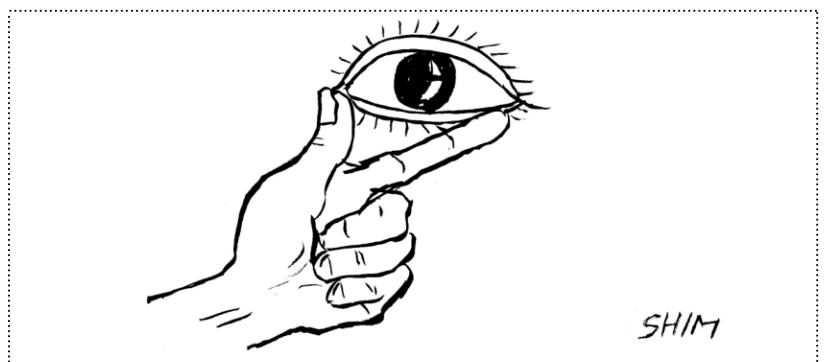
원호가 낙산사에서 관음보살 만난 이야기

여기까지가 <삼국유사>의 이야기를 제가 좀 보태고 각색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한국불교사상 가장 위대한 원호가, 누구보다도 먼저 관음보살을 친견했을 그 분이, 정작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 돌아갔느냐는 것입니다.

프로이트와 조셉 캠벨의 통찰

그 전에 이렇게 편지를 주는 분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실린 설화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야? 떠도는 이야기들을 읽어놓았을 뿐인데... 혹은 저자인 일연의 창작인지도 모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나 설화는 철학적 저술이나 종교적 교리 못지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허투루 보아서 안됩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조셉 캠벨이라는 신화학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천의 얼굴을 한 영웅>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진실을 다양한 형식으로 드러



들(隱事)이라고 하네. 상상과 사실이 뒤섞인 이야기들이 그 어느 철학이나 논설보다 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그런데 왜 원호는 관음보살을 친견하지 못했을까요?" 기존의 정치적 해석은 그렇습니다. 원호가 너무나 뛰어난 탓에, 당시 불교계 전체가 그를 시기하고 미워했고, 그런 나머지 이런 '떨떨어진 원호' 이야기들을 만들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원호가 관음보살을 친견하는데 실패한 두 가지 사례를 잘 음미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부터 볼까요. 원호는 개집을 뺏 물을 받아 마시기를 '거부합니다.' 저번 강 의에서 본 대로, 인생에는 더럽고 깨끗한 것이 섞여 있으며, 우리는 선인과 악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거 부한다면, 우리는 깨끗한 것만을 찾아, 이

주장사파라...

승가난제



승가난제(?-?): 제17대조로 가나제바의 법을 이음. 인도 실라벌 출신으로 마제국에서 대중교화.



조태호



네티즌 교리문답

“왜 청정본각에서 무명이 생깁니까?”

『십이연기법』은 무명, 행, 식, 명색 등 12가지로 연기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즉 최초 무명이 있고, 무명에 연하여 행이 있고 행에 연하여 식이 있고 등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최초의 무명이 어찌 생하게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래 청정한 본각에서 어떠한 이유로 무명으로 생겨나느냐'는 겁니다. (영우)

답1: 12연기법에서의 무명은 중생 개인의 무명으로, 변해 사라지고 깨끗하지 않으며 괴롭고 마음이 일어난 환영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으며 맑고 즐겁게 보며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는 것이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즉 접촉된 대상세계의 집적배열이 있고 그것이 앞으로 남아 그 앞과 인연된 모태에 던져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육근이 생겨나며 육근은 뱀속에서 육경을 접하고 갈애심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영양분 등 각 대상물을 취하며 태내에서 자라서 출생이 있게 되고 거기에는 늙고 죽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도자)

답2: 본래 청정한 본각에서 어떠한 이유로 무명으로 생겨나느냐? 그것은 '무중시즉생(無種時生)', '종자가 없을 때 즉 생겨났다'기 때문입니다. 또 그때 천지가 진동했기에 그렇습니다. 12연기법에서 최초의 무명이 어찌 생하게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오히려 더욱 이상합니다. 12연기법이 연기법인 연고로 고려한 것인데, 무명이 생함이 이해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있으면(生) 반드시 저것이 있으면(生) 생사(生老) 있는 곳에 어찌 무명인들 없겠습니까? 이미 연기법이라 했으니 무명이 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연기법이 아니지요.

본각이니 무명이니 생사니 하고 쓸데없이 문득 한 생각 일으켜 그에 집착할 때 본각이 생하고 무명이 생하며 본각이 갈리고 무명이 갈리도록 스스로 짓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 본각이니 무명이니 하는 따위에 대한 생각이 없고, 그 없다는 것조차 없다가서 설명 그 생각이 일었다 해도 그에 집착치만 않는다면 그것이 있든 없든 그대로 공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는 곳에서 무엇을 일러 생함과 멸함이라 하겠습니까?

그러하니 일체가 공함이고 일체유심조임을 밝게 깨달아 필요에 따라 다만 잠야 쓰되, 무엇이 있다가 없다가거나 혹은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치 않아 생사 즉 유무(有無)의 견해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 탈이 없는 것입니다. (나그네)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12x12 crossword puzzle grid with numbers 1-12 indicating starting positions.

정답은 26면에

상식퍼즐

1.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말로, 불행한 일이 연속됨을 뜻함 4.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제도 6. 6가야 가운데 지금의 경상북도 고령 지방에 있던 부족 8. 광주·화순·담양 사이에 있는 산, 수박이 유명 9. 상관관계에 있는 두 변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 11. 기체상태의 물 12.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전쟁 개시를 알리는 일.

1. 부산 범어사와 현대불교신문의 공동주최로 범어사에서 열리고 있는 10대선사초청 법회의 명칭, '범어사 OOOOO' 2. 평민, 백성의 다른 말 3.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덕적 의미 5. 주민 등록법에 따라, 일정한 거주지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7. 조울한 밤의 분위기를 나타낸 서정적인 피아노곡, 녹턴 10. 귀국하는 사람들을 태운 배 11. 일을 하는데 힘을 들임.